

『素問·血氣形志篇』의 背俞穴과 肝, 脾의 해부학적 위치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조학준 · 김동율*

Correlation between Back Accupoints in *Suwen·Xueqixingzhipian*(素問·血氣形志篇) and Anatomical Location of Liver and Spleen

Jo Hak-jun · Kim Dong-ryu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change in Korean medicine's anatomical awareness through reviewing the locations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ack acupoints, liver, and spleen as revealed in *Suwen·Xueqixingzhipian*.

Methods : The locations of the back acupoints described in the *Suwen·Xueqixingzhipian* were compared with the information found in *Neijing* annotations, *Lingsu*, and other books on acupuncture, and the location of liver and spleen were compared with the figures of internal organs found in pre-Northern Song Period texts and with *Neijing*'s other chapters.

Results : According to *Taisu*, the acupoint UB18 and UB20 as described in the back acupoints of *Suwen·Xueqixingzhipian* are located left side and right side of human body respectively, and this knowledge derives from an accurate anatomical awareness of the locations of liver and spleen. Although such anatomical awareness found in *Taisu*, which was published in the Sui Dynasty, was unable to influence the 10th century Oh Dynasty's *Yanluozhi Neijingtu*, it was gradually revised in Northern Song Period's *Qixifan Wuzangtu* and *Cunzhentu* through autopsies. However, the Theory of Five Elements which described as seen in the other chapters in *Neijing* or Tang Dynasty Wang Bing's annotation that liver is located at the left side of human body and spleen at the center exerted an immense influence over the subsequent generations' future doctors. Even though *Taisu* disappeared in Korea and China at the end of Southern Song period, the accurate anatomical knowledge with regards to the locations of viscera and entrails were passed down through medical texts such as Ming Dynasty's *Yixuerumen*.

Conclusions : *Suwen·Xueqixingzhipian's* awareness on the anatomical locations of liver and spleen only continued until the end of Southern Song period through *Taisu*. Because of this, it's anatomical awareness did not have a chance to gain much following like the Theory of Five Elements' point of view that were introduced in Wang Bing's annotations.

Key Words : *Suwen·Xueqixingzhipian*(素問·血氣形志篇), *HuangdineijingTaisu*(黃帝內經太素), Ganshu(肝俞), Pishu(脾俞), Anatomical location

I. 서 론

臟腑 背俞穴은 해당 經穴에 대한 위치와 主治 등의 직접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부의 臟腑의 해부학적 위치를 간접적으로 반영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봉효 등²⁾은 腹募穴·背俞穴이 해부학적으로 臟腑의 높기와 뚜렷한 상관성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素問』, 『靈樞』에서 臟腑, 특히 五臟의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靈樞腸胃』에는 三焦를 제외한 五腑와 口, 舌, 咽, 喉, 肛門 등의 길이, 크기, 무게, 용량 등을 언급³⁾하

여 『內經』의 해부학적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지만 五臟은 빠져 있으며, 『難經·四十二難』에 이르러서야 五臟의 형태, 무게, 所藏 등을 언급⁴⁾하였다.

인체 내의 臟腑 위치에 대해서 『內經』은 대체로 五行理論을 따랐다고 여겨져 왔는데, 예를 들어 肝은 실제 해부학적 위치(우측)와 반대로 좌측에 위치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素問血氣形志篇』의 背俞穴의 定位는 WHO에서 제시한 경혈 표준⁵⁾과 매우 다른데, 가령 肝俞와 脾俞가 나란히 배열된 점이 매우 독특하다. 그것으로부터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한 『內經』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黃龍祥은 臟腑 背俞穴의 定位에 대해 고찰⁶⁾하였지만 여러 서적마다 다르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經穴學의 전통에 도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李俊, 趙吉平⁷⁾과 王立君⁸⁾과 苑家敏, 鍾蘭⁹⁾은

* Corresponding Author : Kim Dong-ryul,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 +82-43-649-1342. Fax : +82-43-649-1702.

Email : dongryool@empas.com

Received(31 January 2017), Revised(15 February 2017),

Accepted(16 February 2017)

- 1)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中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148. “이러한 五臟腑穴 위치의 차이는 실제 臟器의 위치 범위에 있음을 볼 수 있고 ...”
- 2) 이봉효 외 13인. 腹募穴·背俞穴과 解剖學的 臟腑의 相關性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心包와 三焦의 解剖學的 臟器 推定. 東西醫學. 2009. 34(1). pp.45-62.
-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0. “黃帝問於伯高曰 余願聞六府傳穀者, 腸胃之大小長短, 受穀之多少, 奈何? 伯高曰 請盡言之, 穀所從出入淺深遠近長短之度, 脣至齒長九分, 口廣二寸半, 齒以後至會厭, 深三寸半, 大容五合, 舌重十兩, 長七寸, 廣二寸半, 咽門重十兩, 廣一寸半, 至胃長一尺六寸. 胃紆曲屈, 伸之, 長二尺六寸, 大一尺五寸, 徑五寸, 大容二斗五升. 小腸後附脊, 左環迴周疊積, 其注於迴腸者, 外附於臍上, 迴運環十六曲, 大二寸半, 徑八分之少半, 長三丈二尺, 迴腸當臍左環,

迴周葉積而下, 迴運環反十六曲, 大四寸, 徑一寸寸之少半, 長二丈一尺, 廣腸傳脊, 以受迴腸, 左環葉脊上下辟, 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寸. 腸胃所入至所出, 長六丈四寸四分, 迴曲環反, 三十二曲也.”

- 4)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p.202-205. “肝, ... 左三葉, 右四葉, 凡七葉 ...”
- 5)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Manila.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08.
- 6)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p.871-875.
- 7) 李俊, 趙吉平. 背腧穴淺析. 中醫藥臨床雜誌. 2005. 17(3). pp.304-305.
- 8) 王立君. 背腧穴定位略考. 陝西中醫學院學報. 1999. 22(6).

背俞穴의 定位에 대해 논하였고, 李輝, 王旭¹⁰⁾과 李明爽, 王興, 于鐵成¹¹⁾은 『內經』의 背俞穴 定位에 대해 논하였고, 張永臣, 張春曉¹²⁾는 『針灸甲乙經』의 背俞穴에 대해 논하였고, 鄧靈芝, 張儂, 孫力¹³⁾은 『灸經圖』에 척추로부터 2寸3분이 떨어져 있는 背俞穴의 임상적 효과를 논하였다. 국내에서는 洪文燁, 朴元煥¹⁴⁾은 背俞穴 按診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였고, 이용섭, 홍승원¹⁵⁾은 背俞穴을 요각통의 임상적 진단에 활용하였고, 서민정 등¹⁶⁾은 우울 경향을 진단하는 데 활용하였고, 금동호¹⁷⁾¹⁸⁾는 背俞穴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의 분포와 관계성을 고찰하였고, 박사현, 조명래¹⁹⁾는 背俞穴의 主治症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지만 背俞穴의 定位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다.

『素問·血氣形志篇』에 나타난 背俞穴의 定位은 『靈樞·背腧』 및 여타 鍼灸書籍의 내용과 相異하다는 이유로 역대 注釋家들이 오류로 인식²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연구자들도 肝俞와 脾俞가 나란히 배열된 근거나 그 의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背俞穴과 五臟의 해부학적 위치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素問·血氣形志篇』에 나타난 背俞穴과 肝, 脾의 해부학적 위치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背俞穴의 위치에 대해 『內經』 注釋家, 『靈樞·背腧』 및 여타 鍼灸書籍과 비교하고, 다음으로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해 北宋 이전의 臟腑圖 및 『內經』의 다른 篇과 비교한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반영된 대표적 서적(『醫學入門』과 『東醫實鑑』)의 관점을 비교한다. 이는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의 변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해부학적 인식의 변화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본 론

1. 『素問·血氣形志篇』의 五臟 背俞穴 위치에 대한 『內經』 注釋家の 견해

『素問·血氣形志篇』에 “背俞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兩乳頭의 거리를 재어 가운데를 끊고 다시 다른 풀로서 재어 반을 버리고 그 양끝으로 서로 걸어 정삼각형을 만든다. 이것을 들어서 背部를 재서 한 모통이가 위로 가게 하여 脊椎의 大椎穴과 나란히 놓으면 양 모통이는 아래에 있게 된다. 바로 그 아래 모통이는 肺俞이며, 다시 一度를 내리면 心俞이며, 다시 一度를 내리면 左角은 肝俞이고 右角은 脾俞이며, 다시 一度를 내리면 腎俞이다. 이는 五臟俞로서 뜸뜨고 刺針하는 度數이다.”²¹⁾라고 하였는데 풀로 재어서 穴位를 찾는다고 해서 이를 ‘草量法’²²⁾으로 부른다.

王冰은 “『靈樞經』과 『中誥』에서 모두 이르되, 肺

pp.32-34.

- 9) 苑家敏, 鍾蘭. 背俞穴概述. 實用中醫藥雜誌. 2012. 28(3). pp.236-237.
- 10) 李輝, 王旭. 談內經的腧穴定位方法. 針灸臨床雜誌. 2001. 17(3). pp.3-4.
- 11) 李明爽, 王興, 于鐵成. 淺議『內經』中臟穴理論. 中醫藥導報. 2015. 21(13). pp.3-5.
- 12) 張永臣, 張春曉. 淺析『針灸甲乙經』對背俞穴的認識與應用. 針灸臨床雜誌. 2012. 28(10). pp.50-52.
- 13) 鄧靈芝, 張儂, 孫力. 古『灸經圖』背俞穴二寸三分特色取穴方法. 西部中醫藥. 2011. 24(9). pp.38-39.
- 14) 洪文燁, 朴元煥. 背俞穴 按診에 關한 考察. 東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0. 8(2). pp.155-173.
- 15) 이용섭, 홍승원. X-線像 배수혈 진단을 통한 요각통의 鍼灸 치험 3례.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2). pp.79-88.
- 16) 서민정 외 8인. 우울 경향과 腹募穴, 背俞穴 압통과의 관계 비교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4). pp.97-109.
- 17) 금동호. 교감신경계의 배부분포와 背俞穴의 비교연구. 大韓韓醫情報學會誌. 2003. 9(2). pp.15-27.
- 18) 금동호. 부교감신경계의 분포와 背俞穴의 상관성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4. 15(2). pp.37-44.
- 19) 박사현, 조명래. 背俞穴과 腹募穴의 主治症에 관한 文獻的 比較 研究.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1. 18(1). pp.117-142.
- 20) 王冰, 馬蒔는 오류로 단정하였고, 吳昆, 張志聰, 張介賓 등도 오류로 인식하면서도 王冰, 馬蒔와 달리 단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에 밝힌다.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5. “欲知背俞, 先度其兩乳間, 中折之, 更以他草度, 去半已, 卽以兩隅, 相挂也, 乃學以度其背, 今其一隅居上, 齊脊大椎, 兩隅在下, 當其下隅者, 肺之俞也; 復下一度, 心之俞也; 復下一度, 左角, 肝之俞也; 右角, 脾之俞也; 復下一度, 腎之俞也, 是爲五臟之俞, 灸刺之度也.”

22) 李輝, 王旭. 談內經的腧穴定位方法. 針灸臨床雜誌. 2001. 17(3). p.4.

俞는 三椎의 兩傍에 있고, 心俞는 五椎의 兩傍에 있고, 肝俞는 九椎의 兩傍에 있고, 脾俞는 十一椎의 兩傍에 있고, 腎俞는 十四椎의 兩傍에 있다. 이 『經』(血氣形志篇)의 풀로 재는 방법을 살펴보면 度數에 부합하는 사람은 그 처음 짚 때 양 쪽짓점의 아래는 대략 肺俞에 해당하고, 두 번째 짚 때 양 쪽짓점의 아래는 대략 心俞에 해당하고, 세 번째 짚 때 양 쪽짓점의 아래는 대략 七椎에 해당되니 七椎의 兩傍은 鬲俞의 부위이다. 이 『經』(血氣形志篇)에서 이르되, 左角은 肝俞이고 右角은 脾俞라고 하니, 『中誥』등의 『經』과 매우 다르다. 다시 네 번째 짚 때 양 쪽짓점의 아래는 대략 九椎에 해당되니 九椎의 兩傍은 肝俞이거늘 『經』(血氣形志篇)에서 腎俞라고 한 것은 그 근원을 窮究하지 못한 것이다.”²³⁾라고 注釋하여, 『素問血氣形志篇』의 肺俞, 心俞의 定位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肝俞, 脾俞, 腎俞의 定位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馬蒔는 “그 아래 양 모퉁이의 穴은 곧 心俞이다. 다시 一度를 내려서 위쪽 모퉁이를 第五椎 사이에 놓으면 그 아래에 양 모퉁이 중 左角은 肝俞이고 右角은 脾俞이다. 다시 위쪽 모퉁이를 第七椎 사이에 놓으면 그 아래에 양 모퉁이는 腎俞이니, 이는 五臟의 俞穴이라고 말한다. 五俞에 뜸뜨고자 하는 자는 이 방법으로 기준을 삼을 법하다. 살펴보건대 양 모퉁이는 좌우로 각각 一寸五分만큼 벌어져 있다. 鬲俞穴은 第七椎의 兩傍이 마땅하거늘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릇되었다. 腎俞는 第十四椎의 兩傍에서 각각 一寸五分 벌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는 肝俞가 마땅하거늘 지금 腎俞라고 말한 것은 그릇되었다.”²⁴⁾라고 注釋하였는데, 王冰과 마찬가지로 『素問血

氣形志篇』에 나타난 肝俞, 脾俞, 腎俞의 定位의 오류를 지적할 때 아마도 『靈樞背腧』 또는 그와 동일한 기준을 가진 서적(『明堂經』, 『甲乙經』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 듯하다.

그런데 吳昆과 張志聰은 “여기에서 五臟俞穴을 취하는 방법은 『甲乙經』과 부합되지 않는다. 대개 古人들이 별도로 한 가지 방법을 만든 것이다.”²⁵⁾²⁶⁾라고 注釋하였고, 張介賓은 “살펴보건대 肝俞·脾俞·腎俞를 이 방법으로 재는 것은 『靈樞背腧』篇, 『甲乙經』, 『銅人』 등의 글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 중 반드시 잘못된 것이 없지 않거나 혹은 옛날에 또한 이러한 별도 一家의 法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靈樞背腧』篇과 『甲乙經』이 옳다고 본다.”²⁷⁾라고 注釋하였다.

이처럼 吳昆, 張志聰, 張介賓은 王冰, 馬蒔의 견해와는 약간 다르게 평가하였는데, 吳昆 등은 『素問血氣形志篇』이 『靈樞背腧』篇 등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별도로 ‘一家의 法’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기에서 ‘一家의 法’이란 즉 五臟의 위치에 따라 五臟의 背俞穴이 결정된다는 인식에 따라서 五臟에 대응하는 背俞穴을 體表에서 찾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黃帝內經太素』(이하 『太素』로 칭함)에는 『素問血氣形志篇』의 원문 중 背俞穴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楊上善은 『太素』²⁸⁾에서 ‘左角, 肝之俞

穴, 右角爲脾俞穴. 復將上隅拄第七椎間, 其下兩隅, 乃腎俞穴也, 是謂五臟之俞. 欲灸五俞者, 可以是法爲準矣. 按兩隅左右, 各開一寸五分. 宜爲鬲俞穴, 乃第七椎旁, 今云然者誤也. 腎俞, 在第十四椎之旁各開一寸五分, 此宜爲肝俞穴, 今日腎俞者, 亦誤也.”

23)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33. “『靈樞經』及『中誥』咸云, 肺俞在三椎之傍, 心俞在五椎之傍, 肝俞在九椎之傍, 脾俞在十一椎之傍, 腎俞在十四椎之傍. 尋此經草量之法, 則合度之人, 其初度兩隅之下, 約當肺俞, 再度兩隅之下, 約當心俞, 三度兩隅之下, 約當七椎, 七椎之傍, 乃鬲俞之位. 此經云左角, 肝之俞, 右角, 脾之俞, 殊與中誥等經不同. 又四度則兩隅之下, 約當九椎, 九椎之傍, 乃肝俞也. 經云腎俞, 未究其源.”

24)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馬元臺張隱庵合註 중).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발행연도미상. p.191. “其下兩隅之穴, 卽心俞也. 復下一度, 將上隅拄第五椎間, 其下兩隅, 左角爲肝

25) 吳昆. 素問吳注(吳昆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71. “此取五臟俞法, 與甲乙經不合, 蓋古人別爲一法者也.”

26)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註(張志聰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6. “吳鶴臯曰: 此取五臟俞法, 與甲乙經不合, 蓋古人別爲一法者也.(尾批: 度草同等, 以一草橫于大椎, 二草分頭掛下, 心肝居左, 脾肺在右.)”

27)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46. “按肝俞脾俞腎俞, 以此法折量, 乃與前背俞篇及甲乙經銅人等書, 皆不相合. 其中未必無誤, 或古時亦有此別一家法也. 仍當以前背俞篇及甲乙經書者爲是.”

2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88.

也'를 '右角, 肝輸'로, '右角, 脾之俞也'를 '左角, 脾輸也'로 기록하였고, 丹波康賴는 『醫心方』²⁹⁾에서 『黃帝素問』을 인용할 때 '左角'과 '右角'이 서로 바뀌었다.

최근 『太素』에 대해 成書時代³⁰⁾, 醫學理論 전 반³¹⁾, 三陰三陽 學說³²⁾, 輸穴理論³³⁾, 腎間動氣³⁴⁾, 王冰 注釋과의 비교³⁵⁾ 등 여러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血氣形志篇』의 背俞穴 定位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背俞穴 중 肝俞와 脾俞의 定位가 『太素』 본과 王冰 本에 따라 다른 의의에 대해서 아래에서 논하기로 한다.

2. 『靈樞背腧』와 宋代 이전 역대 鍼灸書籍에 나타난 五臟 背俞穴의 위치

『靈樞背腧』에서 “胸中の 大腧는 杼骨의 말단에 있고, 肺腧는 第三椎의 사이에, 心腧는 第五椎의 사이에, 膈腧는 第七椎의 사이에, 肝腧는 第九椎의 사이에, 脾腧는 第十一椎의 사이에, 腎腧는 第十四椎의 사이에 있으니, 모두 脊中을 중심으로 서로 3寸

떨어져 있는 곳이다. 背腧穴을 取穴할 때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려면 해당부위를 눌렀을 때, 그 반응이 내부로 응하면서 통증이 풀리니, 그곳이 바로 背腧穴이다.”³⁶⁾라고 하였다.

『甲乙經』에서 “肺俞는 第三椎 아래 兩傍 각 一寸五分에 있으니 三分을 刺入하고 七呼를 留針하고 三壯을 뜬다. … 心俞는 第五椎 아래 兩傍 각 一寸五分에 있으니 三分을 刺入하고 七呼를 留針하고 三壯을 뜬다. … 肝俞는 第九椎 아래 兩傍 각 一寸五分에 있으니 三分을 刺入하고 六呼를 留針하고 三壯을 뜬다. … 脾俞는 第十一椎 아래 兩傍 각 一寸五分에 있으니 三分을 刺入하고 七呼를 留針하고 三壯을 뜬다. 腎俞는 第十四椎 아래 兩傍 각 一寸五分에 있으니 三分을 刺入하고 七呼를 留針하고 三壯을 뜬다.”³⁷⁾라고 하여 五臟 背俞穴의 위치가 『靈樞背腧』에 나타난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背俞穴의 위치에 대해 『素問·血氣形志篇』과 『靈樞背腧』를 비교하면 Fig. 138)과 같다.

楊上善은 일찍이 “『黃帝正經』에 척추는 21마디가 있다고 하였지만, 華佗, 扁鵲, 曹翁, 高濟의 무리는 혹은 24개의 척추라고 하거나, 혹은 22개라고 하거나, 혹은 키가 큰 사람은 24개의 척추이고 작은 사람은 21개의 척추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그 증도를 잃어서 크게 미혹하게 하였다.”³⁹⁾ “또한 이르되,

“欲知背輸, 先度其兩乳間中折之, 更以他草度去半已, 卽以兩隅相柱也, 乃學以度其背, 令其一隅居上, 齊脊大椎, 兩隅在下, 當其下隅者, 肺之輸也; 復下一度, 心輸也; 復下一度, 右角, 肝輸也; 左角, 脾輸也; 復下一度, 腎輸也, 是謂五藏之輸, 灸刺之度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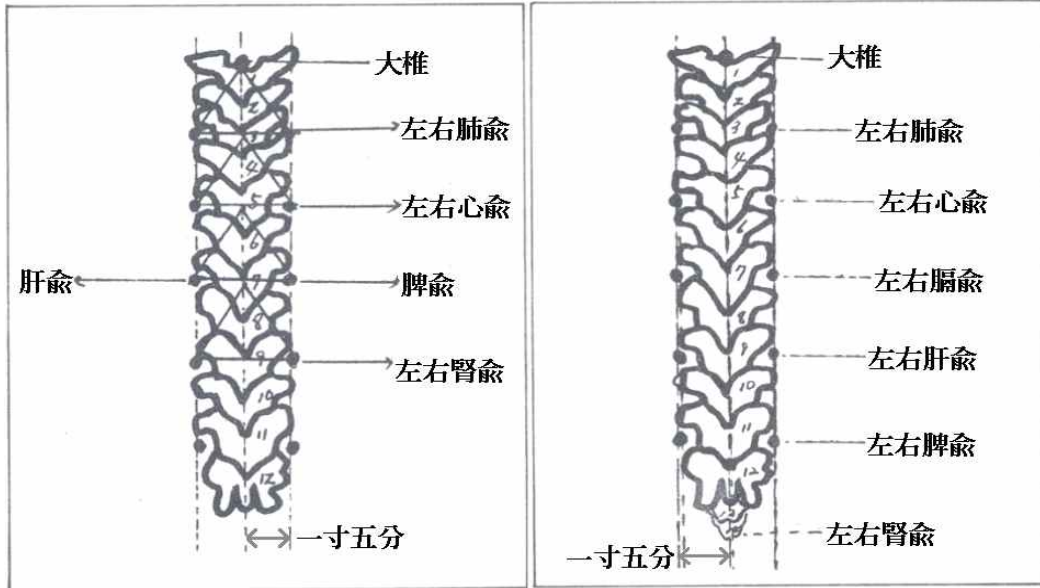
- 29) 丹波康賴. 醫心方(鍼灸醫學典籍大系 Vol. 23). 東京. 出版科學總合科學研究所. 1979. p.86. “黃帝素問曰 欲知背輸, 先度其兩乳間, 中折之, 更以他草度, 去半已, 卽以兩隅, 相柱也, 乃學以度其背, 令其一隅居上, 齊脊大椎, 兩隅在下, 當其下隅者, 肺之輸; 復下一度, 心之輸; 復下一度, 右角, 肝輸; 左角, 脾輸; 復下一度, 腎輸也, 是謂五藏之輸, 灸刺之度也.”
- 30) 錢超塵. 『太素』가 지어진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새로운 견해.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2). pp.301-304.
- 31) 이상협, 김중환.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pp.35-69.
- 32)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6. 10(1). pp.450-493.
- 33) 류정아, 백상룡, 정창현. 『黃帝內經太素』의 輸穴理論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1). pp.31-49.
- 34) 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pp.101-111.
- 35) 김기욱, 박현국. 楊上善과 王冰 注釋의 比較論의인 研究 (1).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1. 14(1). pp.89-120.

-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5. “胸中大腧, 在杼骨之端, 肺腧在三椎之間, 心腧在五椎之間, 膈腧在七椎之間, 肝腧在九椎之間, 脾腧在十一椎之間, 腎腧在十四椎之間, 皆挾脊相去三寸所, 則欲得而驗之, 按其處, 應在中而痛解, 乃其腧也.”
- 37) 皇甫謐.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0. pp.140-141. “肺俞, 在第三椎下兩傍各一寸五分. 刺入三分, 留七呼, 灸三壯. … 心俞, 在第五椎下兩傍各一寸五分. 刺入三分, 留七呼, 灸三壯. … 肝俞, 在第九椎下兩傍各一寸五分. 刺入三分, 留六呼, 灸三壯. … 脾俞, 在第十一椎下兩傍各一寸五分, 刺入三分, 留七呼, 灸三壯. 腎俞, 在第十四椎下兩傍各一寸五分. 刺入三分, 留七呼, 灸三壯.”
- 38)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中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148.
- 39) 丹波康賴. 醫心方(鍼灸醫學典籍大系 Vol. 23). 東京. 出版科學總合科學研究所. 1979. p.79. “楊玄操曰 『黃帝正經』 椎有廿一節, 華佗, 扁鵲, 曹翁, 高濟之徒, 或云廿四椎, 或云廿二, 或云 長人廿四椎, 短人廿一椎. 此並兩失其衷, 大致或疑”

Fig. 1. Comparisons to the Back Acupoints

① *Suwen-Xueqixingzhipian*

② *Lingshu-Beishu*



여러 背俞穴은 모두 두 개의 穴이 있는데 척추를 끼고 서로 3寸만큼 떨어져 있다. 諸家들의 여러 설명이 종종 같지 않다. 혹자는 이르되, 肺俞는 第五椎에 있고 心俞는 第七椎에 있다고 하였으며, 혹자는 이르되 서로 2寸半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고 혹자는 이르되 2寸이라고 하고 혹자는 이르되 3寸3分이라고 하고 혹자는 여러 背俞穴이 모두 3개의 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또한 그릇되었다.”⁴⁰⁾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은 『醫心方』에 실려 있지만 『太素』에는 나오지 않는다.

宋代 이전 背俞穴의 取穴法은 서적마다 차이가 있다. 楊上善이 일찍이 언급한 다섯 가지 背俞穴 定位法은 현존하는 문헌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⁴¹⁾ 알려져 있다. 脊椎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 背俞穴 定位法에 다시 『素問血氣形志篇』과 『靈樞背俞

』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五臟 背俞穴의 높이를 표시⁴²⁾하면 Table 1과 같다.(단, 『靈樞背俞』의 내용은 『明堂經』, 『甲乙經』, 『針灸大成』 등과 동일하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肺俞는 제3椎~제8椎에, 心俞는 제3椎~제7椎에, 肝俞는 제7椎~제9椎에, 脾俞는 제7椎~제12椎에, 腎俞는 제9椎~제14椎에 위치하고 있다. 비록 그 위치가 서적마다 차이가 있지만 五臟俞穴의 위치(높이)는 대체로 臟器의 위치(높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⁴³⁾.

背俞穴의 위치가 서적마다 다른 것에 대해 楊上善은 “천지의 조화는 헤아리면 무궁한데, 사람의 俞穴의 나뉘미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옛날 神農氏는 천지 사이의 金石草木 365종을 수집하여 365일을 본받아 병을 구제할 때에 사용하였다. 수집하지 못한 것에는 사람이 알고 쓰거나 혹은 사람이 알지 못

40) 丹波康賴. 醫心方(鍼灸醫學典籍大系 Vol. 23). 東京. 出版科學總合科學研究所. 1979. pp.79-80. “又云 諸俞皆兩穴, 俠脊相去三寸. 諸家雜說多有不同. 或云肺俞第五椎, 心俞第七椎. 或云相去二寸半, 或云二寸, 或云三寸三分, 或云諸俞皆有三穴, 此又謬矣.”

41)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872.

42)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875.

43)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中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1148. “이러한 五臟俞穴 위치의 차이는 실제 臟器의 위치 범위에 있음을 볼 수 있고 ...”

Table 1. Method for locations of Back Accupoints in TCM books before the Song Dynasty

書名 椎數	血氣形志篇	明堂經	扁鵲鍼灸經	華佗鍼灸經	龍銜素鍼經	僧匡及方	中藏經
第3椎	肺俞	肺俞			心俞		
第4椎							
第5椎	心俞	心俞			肺俞		肺俞
第6椎			心俞	心俞			
第7椎	肝俞 脾俞				肝俞	心俞	
第8椎			肺俞	肝俞			
第9椎	腎俞	肝俞					肝俞
第10椎			脾俞	脾俞			
第11椎		脾俞					脾俞
第12椎						脾俞	
第13椎							
第14椎		腎俞					腎俞

하는 것도 역시 많다. 다음에 黃帝가 사람의 신체에 365穴을 취하여 역시 365일을 본받았다. 신체 위에分寸으로 바꾸면 좌우에 차이가 있고, 병을 치료하는 輸穴도 실제로 적지 않다. 『扁鵲鍼灸經』에 이르러서는 取穴과 穴名이 많이 다르고, 近代의 『秦承祖明堂』과 『曹子氏鍼經』 등 전해 내려오는 別本에 穴의 위치와 穴名이 또한 모두 다름이 있다. 그러나 질병을 제거하고 치료함이 적지 않으니 지혜롭게 헤아려 질병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싸잡아서 그르다고 하는 것은 大方의 論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計量法은 聖人の 가르침이 다름이 있기 때문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⁴⁴⁾라고 설명하였는데, 만물이 다양한 만큼 인체의 키나 체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背俞穴의 위치가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楊上善은 背俞穴의 위치가 서적마다 다른

이유로 개체의 다양성을 들고 있지만, 五臟 背俞穴을 비교하면 그 높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순서도 다르다.(Table 1 참조)

Table 1에서 五臟 背俞穴을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靈樞背腧』(『明堂經』, 『甲乙經』, 『針灸大成』과 동일함)에서는 肺⇒心⇒肝⇒脾⇒腎으로 되어 있지만 『素問·血氣形志篇』에서는 肝과 脾가 같은 높이에 배열되어 있고, 『扁鵲鍼灸經』과 『龍銜素鍼經』에서 心이 肺보다 높게 배열되어 있고, 『華佗鍼灸經』과 『中藏經』에서는 肝이 脾보다 높게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心이 肺보다 높게 배열된 것(『扁鵲鍼灸經』, 『龍銜素鍼經』)은 心과 肺의 해부학적 위치(높이)를 따른 것이 아니라, 火를 위쪽(南方)에, 金を 우측(西方)에 배열한 五行理論을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肝이 脾보다 높게 배열된 것(『華佗鍼灸經』, 『中藏經』)은 肝과 脾의 해부학적 위치(높이)를 따른 것이 아니라, 『靈樞背腧』의 배열 순서를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北宋 이전의 臟腑圖에 나타난 五臟의 위치

다음으로 北宋 이전의 臟腑圖에 나타난 五臟의 위치(五臟의 높이, 肝과 脾의 좌우 위치)와 『素問·血氣形志篇』에 나타난 肝俞와 脾俞의 定位를 비교하고자 한다.

4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188. “天地造化, 數乃無窮, 人之輸穴之分, 何可同哉? 昔神農氏錄天地間金石草木三百六十五種, 法三百六十五日, 濟時所用. 其不錄者, 或有人識用, 或無人識者, 蓋亦多矣. 次黃帝取人身體三百六十五穴, 亦法三百六十五日. 身體之上, 移於分寸, 左右差異, 取病之輸, 實亦不少. 至於『扁鵲鍼經』, 取穴及名字, 即大有不同. 近代『秦承祖明堂』, 『曹子氏鍼經』等, 所承別本, 處所及名, 亦皆有異. 而除尙遺疾, 又復不少, 正可以智量之, 適病爲用, 不可全言非也. 而並爲非者, 不知大方之論. 所以此之量法, 聖人設教有異, 未足怪之也.”

(1) 煙蘿子內境圖 계통

煙蘿子內境圖(10세기, 五代)가 현재 전해오는 서적은 石泰의 『修真十書雜著捷徑』(南宋)⁴⁵⁾(Fig. 2)과 동시대의 李嗣의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1269, 南宋)의 『道藏』本⁴⁶⁾과 元 刊本⁴⁷⁾(Fig. 3, Fig. 4)으로 알려져 있다⁴⁸⁾.

Fig. 2. *XiuZhenShiShuZaZhuJieJing*

圖之面背境內 圖之面正境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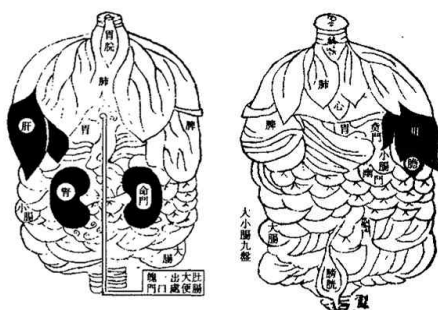


Fig. 3. *NanJingZuanTuJuJie*(from *DaoCang* 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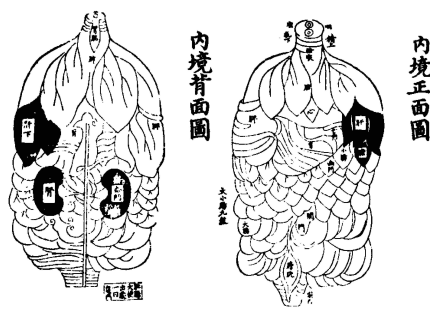


Fig. 4. *NanJingZuanTuJuJie*(from *Yuan* 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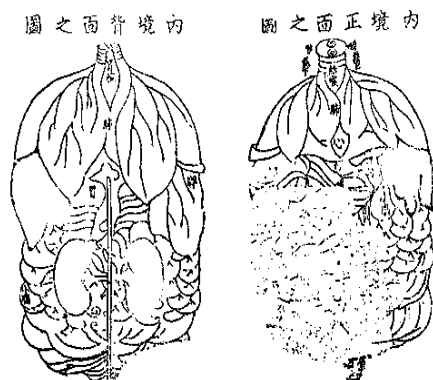


Fig.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煙蘿子內境圖(10세기, 五代)에 나타난 五臟을 높이 순으로 배열하면 肺⇒心⇒肝-脾⇒腎으로 되어 있어서 肝과 脾의 높이가 거의 같다. 肝이 해부학적 위치(인체의 우측)가 아니라 五行에 따른 위치(肝은 木에 속하여 좌측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는 '肝은 나무와 속성이 같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脾는 그림에서 인체 내 우측에 위치하고 있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脾土가 중앙에 위치한다는 五行理論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歐希範五臟圖 계통

歐希範五臟圖(北宋代)는 梶原性全의 『頓醫鈔』(1304)⁴⁹⁾의 正面內相圖(Fig. 5), 正背圖(Fig. 6), 背面圖(Fig. 7), 心肺二臟之圖, 心氣圖(Fig. 8), 氣海膈膜圖와 『萬安方』⁵⁰⁾(1315)의 前面向圖(Fig. 9), 正面圖(Fig. 10), 背面圖(Fig. 11), 右高向圖, 心氣圖(Fig. 12), 氣海膈膜圖, 脾胃包系圖, 小腸膀胱蘭門圖, 命門大小腸膀胱之系圖 중 『頓醫鈔』의 正面內向圖(Fig. 5)와 『萬安方』(1315)의 正面圖(Fig. 10)로 추정되고 있으며⁵¹⁾, 나머지 그림은 存眞圖 계통으로 추정되고 있다.

45) 石泰. 修真十書雜著捷徑(道藏 Vol.4). 上海.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 p.690.
 46)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道藏 Vol.21). 上海.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 p.595.
 47)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11.
 48)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pp.68-77.

49) 梶原性全. 頓醫鈔. 東京. 科學書院. 2003. p.38, 41, 42, 45.
 50)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20.
 51)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12.

Fig. 5. Front view(from DunYiCh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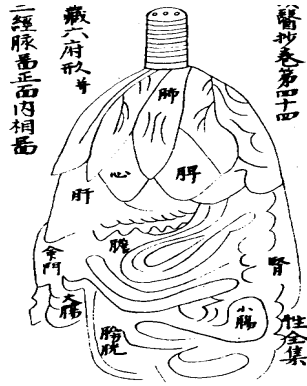


Fig. 6. Rear view(1)



Fig. 7. Rear view(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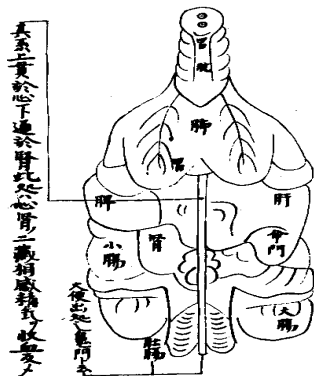


Fig. 8.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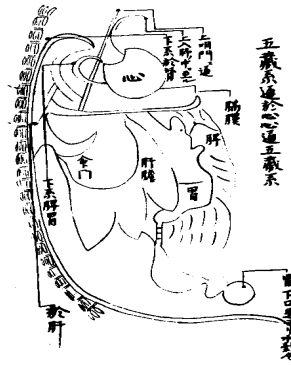


Fig. 9. Front view(1)(from WanAnF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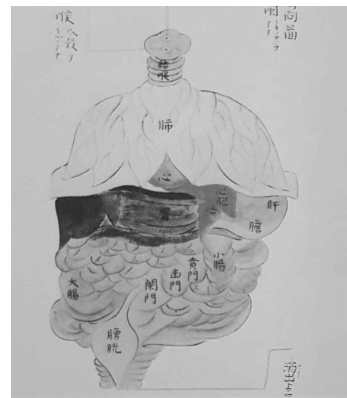


Fig. 10. Front view(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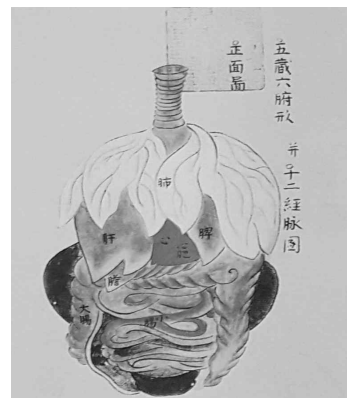


Fig. 11. Rear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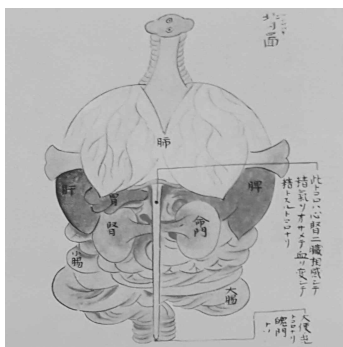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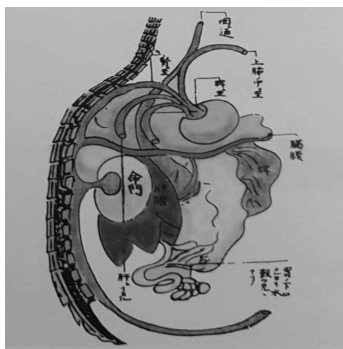


Fig. 12. Side view



『頓醫鈔』의 正面內向圖(Fig. 5)와 『萬安方』(1315)의 正面圖(Fig. 10)에 나타난 五臟을 높이 순으로 배열하면 肺⇒心⇒肝-脾⇒腎으로 되어 있어서 肝과 脾의 높이가 거의 같으며, 肝이 인체의 우측에, 脾가 우측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참고로 덧붙여 설명하자면, 『頓醫鈔』의 正面內向圖(Fig. 5), 背圖(Fig. 7)에는 肝이 인체의 우측에, 脾가 좌측에 있지만, 正背圖(Fig. 6)에는 肝이 인체의 좌측에, 脾가 우측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萬安方』의 前向面圖(Fig. 9), 背面圖(Fig. 11)에는 肝이 인체의 좌측에, 脾가 우측에 있지만, 正面圖(Fig. 10)에는 肝이 인체의 우측에, 脾가 좌측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頓醫鈔』의 心氣圖(Fig. 8)와 『萬安方』의 心氣圖(Fig. 12)는 우측면도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에 정면도, 배면도에 비해 肝과 脾의 좌우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원근을

고려한다면 肝이 가까이 있으므로 우측에, 脾가 멀리 있으므로 좌측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萬安方』의 前向面圖(Fig. 9), 背面圖(Fig. 11)는 煙蘿子內境圖의 內境正面圖, 內境背面圖(Fig. 2~4)와 臟腑의 위치를 표기한 것이 일치하지만 肝과 脾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좌우가 뒤바뀌어 있다. 다시 말하면, 『萬安方』의 前向面圖, 背面圖는 비록 煙蘿子內境圖에 나타난 肝의 형상과 脾의 형상을 서로 바꾸어 바로잡았지만, 그 표기는 煙蘿子內境圖를 답습하여 肝을 좌측, 脾를 우측에 표기하였다⁵²⁾. 결국 肝과 脾에 대해서는 그 형상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萬安方』의 正面圖(Fig. 10)에는 肝이 인체의 우측에, 脾가 좌측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萬安方』의 前向面圖(Fig. 9), 背面圖(Fig. 11)에는 그와 반대로 표현되어 있다⁵³⁾.

이와 같은 점은 『頓醫鈔』, 『萬安方』에서 五臟圖가 그려진 당시에 肝이 인체의 우측, 脾가 좌측에 있다는 관점과 그 반대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음이 반영된 것을 뒷받침한다.

(3) 存眞圖 계통

存眞圖(北宋代)는 歐希範五臟圖의 臟腑圖(9종)와 유사하게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 肺側圖, 心氣圖, 氣海膈膜圖, 脾胃包系圖, 小腸膀胱蘭門圖, 命門大小腸膀胱之系圖 등 8종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

52) 조학준. 北宋 이전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소스의 비교. 한국역사학회지. 2016. 29(2). p.21. “『煙蘿子內境圖』에서는 肝을 인체 내의 왼쪽, 脾를 오른쪽에 표기하였지만, 『萬安方』에서는 肝을 오른쪽, 脾를 왼쪽에 표기하되 肝과 脾의 형상까지 서로 바꾸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萬安方』의 前向面圖, 背面圖의 ‘肝’은 煙蘿子內境圖의 ‘脾’의 형상에 표기한 것이고, 『萬安方』의 ‘脾’는 煙蘿子內境圖의 ‘肝’의 형상에 표기한 것이다.”라고 잘못 표현된 것을 수정하였다.

53) 『萬安方』의 前向面圖, 背面圖, 心氣圖에서 肝과 脾의 형상은 그 이전의 그림인 煙蘿子內境圖 보다 그 이후의 存眞圖 계통의 그림과 더 흡사하다. 『萬安方』의 正面圖에는 肝이 인체의 우측에, 脾가 좌측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萬安方』의 前向面圖, 背面圖에는 그와 반대로 표현된 점을 고려하면, 『萬安方』의 臟腑圖는 煙蘿子內境圖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存眞圖 계통의 臟腑圖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華陀內照圖』 등 여러 傳本이 현재 전해오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傳本으로 알려진 孫煥이 重刊한 『華陀內照圖』(元代, 1273)에 실린 그림 중 肝과 脾가 표현된 그림은 人臟正面圖(Fig. 13), 人臟背面圖(Fig. 14), 心氣圖(Fig. 15)⁵⁴⁾가 있다.

Fig. 13. Front view (from *HuaTuoNeiZhaoTu*)



Fig. 14. Rear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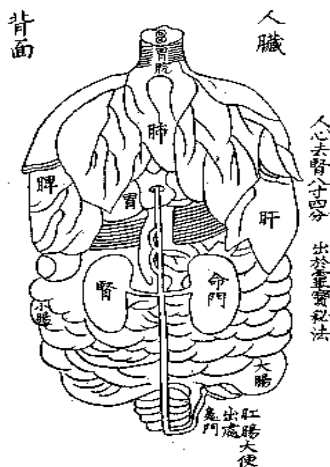


Fig. 15.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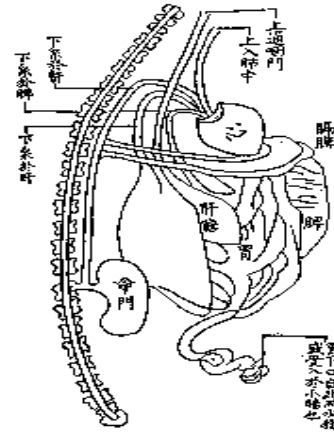


Fig. 1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華陀內照圖』에 나타난 五臟을 높이 순으로 배열하면 肺⇒心⇒肝-脾⇒腎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肝과 脾는 같은 높이에 있되 肝은 우측에, 脾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華陀內照圖』의 人臟正面圖, 人臟背面圖에는 肝을 인체의 우측에, 脾를 좌측에 표기함으로써 『萬安方』의 前向面圖, 背面圖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華陀內照圖』의 心氣圖(Fig. 15)는 우측면도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에 정면도, 배면도에 비해 肝과 脾의 좌우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원근을 고려한다면 肝이 가까이 있으므로 우측에, 脾가 멀리 있으므로 좌측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存眞圖 계통의 『華陀內照圖』에서 肝을 표현할 때 五行理致에 따른 것(肝은 木에 속하여 좌측에 위치)이 아니라 해부학적 실제 위치(인체의 우측)를 따른 점에 대해 楊介가 해부를 통해 歐希範五臟圖의 오류를 바로잡았다고⁵⁵⁾ 평가되고 있는데, 楊介에 의하여 肝의 위치가 수정됨에 따라 脾의 위치도 해부학적 실제 위치와 부합하게 되었다.

4. 『內經』에 나타난 肝과 脾의 높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素問·血氣形志篇』과 『靈樞·背腧』에 나타난 五臟 背俞穴의 定位는 각각 서로

54)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p.19, 20, 32.

55)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p.75.

Table 2. Places where Qi exists(in *Suwen-Zhenyaojingzhonglun*)

月	人氣所在	月	人氣所在
正月 二月	肝	七月 八月	肺
三月 四月	脾	九月 十月	心
五月 六月	頭	十一月 十二月	腎

다르다. 특히 『素問·血氣形志篇』에서 心俞에서 一度 내려간 곳에 좌측은 肝俞이고 우측은 脾俞라고⁵⁶⁾ 설명한데 반해, 『靈樞·背腧』에서 肝俞는 9椎의 사이에 있고 脾俞의 11椎의 사이에 있다고⁵⁷⁾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肝俞와 脾俞의 위치가 동일한 높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肺俞, 心俞, 腎俞는 그 개수가 각각 2개이지만 肝俞, 脾俞는 그 개수가 각각 1개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肝과 脾는 그 穴位가 하나라는 점은 肝과 脾가 각각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素問·血氣形志篇』에서는 인체 내에서 肝과 脾의 높이를 동일시하였지만 다른 篇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素問·診要經終論』에서 1년 人氣所在에 대해 논하였는데⁵⁸⁾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氣所在를 배속한 기준이 바로 五行理論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다. 예를 들어 正月, 二月는 春(木)에 속하여 肝에 해당되지만 三月, 四月는 春(木)에도 속하고 四季(土)에도 속하므로 脾에 전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五月, 六月는 夏(火)에 속하지만 頭에 배속되어 있고, 九月, 十月는 秋(金)에도 속하고 四季(土)에도 속하므로 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素問·診要經終論』에서 人氣所在를 배속한 기준은 春夏秋冬에 따라 天地의 氣가 升降浮沈에 따른 ‘인체의 高下’라는 관점⁵⁹⁾을 따른다면, 肝 → 脾 → 頭의 순서로 높아지고 肺 → 心 → 腎의 순서로 낮아진다. 즉 『素問·診要經終論』에서 肝의 높이는 脾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靈樞·背腧』에서 ‘肝俞는 第九椎의 사이에, 脾俞는 第十一椎의 사이에 있다.’고 하여 肝의 높이가 脾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한 것과 반대가 된다.

『內經』, 즉 『素問』과 『靈樞』의 여러 篇의 저자가 각각 다르며 그 내용도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⁶⁰⁾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內經』에 나타난 五臟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篇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는 점, 즉 『素問·血氣形志篇』에서 肝과 脾의 높이가 동일하다는 관점과 『素問·診要經終論』에서 肝의 위치가 脾보다 낮다는 관점과 『靈樞·背腧』에서 肝의 위치가 脾보다 높다는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이 모두 다른 것이 그다지 이상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肝과 脾의 위치(높이)를 고려할 때 『素問·血氣形志篇』의 인식이 해부학적 실제와 가장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臟腑 背俞穴이 인체 내부 臟腑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素問·血氣形志篇』의 草量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5. “欲知背俞, 先度其兩乳間, 中折之, 更以他草度, 去半已, 卽以兩隅, 相挂也, 乃學以度其背, 今其一隅居上, 齊脊大椎, 兩隅在下, 當其下隅者, 肺之俞也; 復下一度, 心之俞也; 復下一度, 左角, 肝之俞也; 右角, 脾之俞也; 復下一度, 腎之俞也, 是爲五藏之俞, 灸刺之度也.”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5. “黃帝問於岐伯曰 願聞五藏之腧, 出於背者. 岐伯曰 胸中大腧, 在杼骨之端, 肺腧在三椎之間, 心腧在五椎之間, 膈腧在七椎之間, 肝腧在九椎之間, 脾腧在十一椎之間, 腎腧在十四椎之間, 皆挾脊相去三寸所, 則欲得而驗之, 按其處, 應在中而痛解, 乃其腧也.”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4. “正月二月, 天氣始方, 地氣始發, 人氣在肝; 三月四月, 天氣正方, 地氣定發, 人氣在脾; 五月六月, 天氣盛, 地氣高, 人氣在頭; 七月八月, 陰氣始殺, 人氣在肺; 九月十月, 陰氣始水, 地氣始閉, 人氣在心; 十一月十二月, 水復, 地氣合, 人氣在腎.”

59)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Vol. 2). 발행처 미상. 금성인쇄사. 2001. p.93.

60)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46.

法은 『內經』에서 心보다 肺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肝과 脾가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정확한 해부학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五行理論에서 心은 火로서 위(남쪽)에 위치하고 肺는 金으로서 우측(서쪽)에 위치하며 肝은 木으로서 좌측(동쪽)에 위치하고 脾는 土로서 중앙에 위치한다는 관점과는 다르다.

5. 『內經』에 나타난 肝과 脾의 좌, 우 위치

『內經』에서 肝과 脾가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내용에 대해 王冰 本과 『太素』本을 나란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素問脈要精微論』(王冰 本)에서 尺膚切診의 부위를 논하였는데⁶¹⁾,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 62)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肝은 좌측에, 脾는 우측에 배속되어 있다. 그러나 『太素』本⁶³⁾에는 肝과 脾의 좌우 위치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素問刺熱』(王冰 本)⁶⁴⁾과 『太素』本⁶⁵⁾에서 둘 다

五臟熱病의 面部 望診에 대해 논하였는데 肝은 좌측에, 肺는 우측에, 脾는 중앙(코)에 배속되어 있다.

『素問刺禁論』(王冰 本)⁶⁶⁾와 『太素』本⁶⁷⁾에서 둘 다 五臟의 要害에 대해 논하였는데 肝은 좌측에, 肺는 우측에 배속되었고 脾는 ‘使’로 비유되었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四時의 氣가 운행하는 것을 논하였는데⁶⁸⁾ 봄의 기운은 서쪽으로 행하고 아래에서 시작되고 좌측에서 시작되며, 여름의 기운은 북쪽으로 행하고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앞에서 시작되며, 가을의 기운은 동쪽으로 행하고 위에서 시작되고 우측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素問六元正紀大論』은 唐代에 王冰이 補入한 것으로서 隋代 『太素』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9. “尺內兩傍, 則季脇也, 尺外以候腎, 尺裏以候腹中, 附上左, 外以候肝, 內以候膈,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臍中. 前以候前, 後以候後. 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

62) 程士德 主編. 素問注釋滙粹(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54.

6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298. “尺內兩旁, 則季脅也(從關至尺澤爲尺也. 季脅之部當在尺中央兩旁, 不在尺外兩旁, 季脅有病當見此處.), 尺外以候腎(尺中兩旁之外, 以候兩腎之有病, 當見此部也.), 尺裏以候腹中(自尺內兩中間, 總候腹中.) 附上以候胸中(附當爲膚, 古通用字, 故爲附耳. 當尺裏以上皮膚, 以候胸中之病. 平按: 『素問』作“附上, 左外以候肝, 內以候膈; 右外以候胃, 內以候脾. 上附上, 右外以候肺, 內以候胸中; 左外以候心, 內以候臍中.” 『甲乙』同.) 前候前, 後候後(當此尺裏附前, 以候胸腹之前, 附後以候背後. 平按: 『素問』, 『甲乙』作前以候前, 後以候後.) 附上, 臍上也(當尺裏附上皮膚, 以候臍上也. 一曰竟上, 疑錯.) 臍下者, 腹中事也(當尺裏膚上以下, 以爲臍下之分, 卽腹中事. 平按: “附上, 臍上也, 臍下者, 腹中事也.” 『素問』作“上竟上者, 胸喉中事也; 下竟下者, 少腹腰股膝脛足中事也.” 『甲乙』同, 惟脛下無足字.)”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9.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6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438. “肝熱病者左頰先赤, 心熱病者顏先赤(平按: 『甲乙』顏下有頤字.), 脾熱病者鼻先赤, 肺熱病者右頰先赤, 腎熱病者頤先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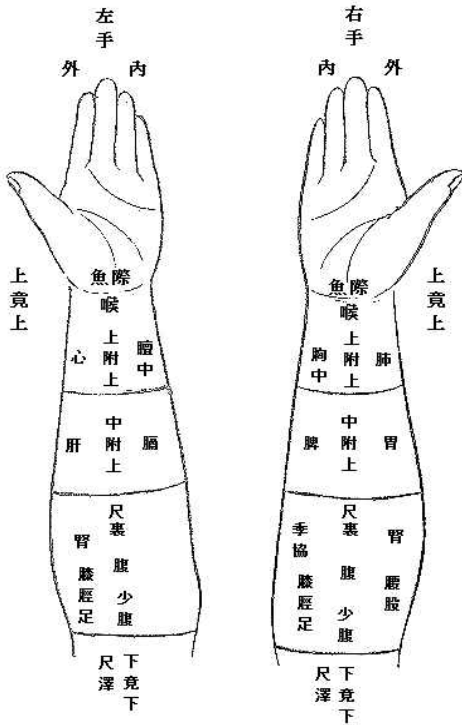
6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0. “藏有要害, 不可不察. 肝生於左, 肺藏於右,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 胃爲之市. 鬲育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 從之有福, 逆之有咎.”

67)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p.330-331. “藏有要害, 不可不察(五藏之氣所在, 須知針之爲害至要, 故欲察而識之.), 肝生於左(肝者爲木在春, 故氣生左.) 肺藏於右(肺者爲金在秋, 故氣藏右也. 肝爲少陽, 陽長之始, 故曰生也. 肺爲少陰, 陰藏之初, 故曰藏也. 平按: 注生也藏也『素問』新校正所引楊注無兩“也”字.), 心部於表(心者爲火在夏, 居於太陽, 最上故爲表.), 腎治於裏(腎者爲水在冬, 居於太陰, 最下故爲裏也. 心爲五臟部主, 故得稱部. 腎間動氣, 內理五臟, 故曰裏也. 平按: 注內理五臟, 『素問』新校正所引楊注理作治, 故曰裏也, 裏作治.), 脾爲之使(脾者爲土, 王四季. 脾行穀氣以資四臟, 故爲之使也.), 胃爲之市.(胃爲脾腑也. 胃貯五穀, 授氣與脾, 以資四臟, 故爲市也.), 鬲育之上, 中有父母, (心下鬲上謂育. 心爲陽, 父也. 肺爲陰, 母也. 肺主於氣, 心主於陽, 共營衛於身, 故爲父母也. 平按: 注謂育, 『素問』新校正所引楊注作爲育.) 七節之傍, 中有志心, (脊有三七二十一節, 腎在下七節之傍. 腎神曰志, 五臟之靈皆名爲神, 神之所以任物, 得名爲心, 故志心者, 腎之神也. 平按: 志心『素問』作小心, 新校正云: “『太素』作志心.” 注“五臟之靈皆名爲神, 神之所以任物, 得名爲心”, 袁刻脫此十八字.“物, 得名爲心, 故志心者, 腎之神也”十三字, 新校正所引作“得名爲志者, 心之神也”九字.) 順之有福, 逆之有咎(人之上順血氣, 下順志心, 有長生之福; 逆之, 有入死地之禍也. 平按: 順『素問』作從.)”

6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75. “春氣西行, 夏氣北行, 秋氣東行, 冬氣南行. 故春氣始於下, 秋氣始於上, 夏氣始於中, 冬氣始於標, 春氣始於左, 秋氣始於右, 冬氣始於後, 夏氣始於前, 此四時正化之常. 故至高之地, 冬氣常在, 至下之地, 春氣常在. 必謹察之.”

』本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Fig. 16. Diagnostic site of ChiFu(尺膚)



『素問刺法論』에서 疫病에 걸린 병실에 들어갈 때 疫病을 예방하기 위한 存想法를 논하였는데⁶⁹⁾ 靑氣가 肝으로부터 나와서 좌측에서 동쪽으로 행한다고 상상하며, 黃氣가 脾로부터 나와서 중앙에 보존된다고 상상한다고 하였다. 『素問刺法論』은 「本病論」과 함께 『素問』遺篇으로서 王冰이 『素問』에 注釋을 달고 運氣篇을 補益할 때 運氣七篇과는 달리 篇의 題目만 있고 內容은 亡失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太素』本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로써 肝은 『素問脈要精微論篇』, 『素問刺熱篇』,

『素問刺禁論篇』, 『素問刺法論篇』 등에는 五行理論에 따라 좌측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脾는 『素問脈要精微論篇』에는 우측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지만 『素問刺熱篇』에는 五行理論에 따라 중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다른 篇은 그 위치와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처럼 『內經』에서 五臟의 위치를 기술할 때 五行理論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부학적 위치에 근거하는 경우는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素問血氣形志篇』에서 五臟의 背俞穴 중 肝俞와 脾俞는 하나인데, 王冰 本에서 肝俞는 좌측에, 脾俞는 우측에 위치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太素』本에서는 반대로 肝俞는 우측에, 脾俞는 좌측에 위치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楊上善이 『太素』를 저술한 시기가 隋代이고 王冰이 『素問』을 注釋한 시기가 唐代이므로 王冰이 注釋한 『素問』보다 앞서며, 王冰이 『素問』을 注釋할 때 編制를 改編하는 동시에 內容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을 근거로 추측해 볼 때, 『素問』의 원문은 본래 『太素』와 같이 ‘右角, 肝輸也; 左角, 脾輸也’로 되어 있었지만 王冰이 全元起의 『內經訓解』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左角, 肝之俞也; 右角, 脾之俞也’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王冰이 左角을 肝俞로, 右角을 脾俞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의 해부학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王冰은 일찍이 運氣七篇을 補入하면서 「五運行大論」 중 藏象의 內容을 注釋할 때 “五藏으로는 肝이다. 肝은 두 개의 벌어진 잎과 하나의 작은 잎이 있는데, 나무가 싹터서 벌어지는 象과 같다. … 五藏으로는 心이다. 心의 형상은 피지 않은 연꽃과 같되 가운데에 9개의 구멍이 있어서 天真의 氣를 인도하니 神의 집이다. … 五藏으로는 脾이다. 형상이 말 발굽을 닮았고 안으로 胃脘을 감싸니 土의 형상을 본땀다. … 五藏으로는 肺이다. 肺의 형상은 사람의 어깨와 같다. 두 개의 벌어진 잎과 여러 개의 작은 잎이 있는데, 가운데 24개의 구멍이 열을 이루고 있어서 여러 藏에 있는 淸濁의 氣를 분포하고 주로 넋을 감추고 있다. … 五藏으로는 腎이다. 腎藏은 두 개가 있는데, 형상이 豇豆(갓끈 동부콩)가 서로 나란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85. “欲將入於疫室, 先想靑氣自肝而出, 左行於東, 化作林木, 次想白氣, 自肺而出, 右行於西, 化作戈甲, 次想赤氣, 自心而出, 南行於上, 化作焰明, 次想黑氣, 自腎而出, 北行於下, 化作水, 次想黃氣, 自脾而出, 存於中央, 化作土.”

히 있는 것과 같고, 등뼈의 힘줄에 구부러져 붙어 있는데, 안은 희고 겉은 검으며 주로 精을 감추고 있다.”⁷⁰⁾라고 함으로써 五臟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형용하였다.

五臟의 형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형용한 王冰의 注釋은 『素問』, 『靈樞』의 원문 자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內經』을 읽는 이로 하여금 해부학적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인체 내 肝이 좌측에 있다고 인식하였기에 『素問·血氣形志篇』의 원문을 ‘左角, 肝之俞也; 右角, 脾之俞也’로 바꾸어 해부학적 실체와 멀어지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만약 비슷한 높이에 위치한 臟腑에 대해 그 주위의 穴位를 처음定한다면 해당 臟腑의 좌우 위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王冰은 肝이 인체의 좌측에, 脾가 우측에 위치한다고 여겨 『血氣形志篇』의 원문을 수정하였지만,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한 楊上善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기에 『太素』에서 『血氣形志篇』의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五臟의 높이와 肝, 脾의 좌우 위치를 고려할 때 太素本 『血氣形志篇』의 五臟 背俞穴의 위치가 인체 해부학적 실체에 더 부합한다. 그렇지만 王冰의 注釋은 후세의 醫家들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읽었으므로 그들에게 당연히 큰 영향을 미쳤기에 『內經』의 다른 篇이나 王冰의 注釋은 후세 醫家들의 人體觀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게다가 南宋 이후로 『太素』가 중국과 한국에서 사라졌으므로⁷¹⁾ 『太素』本 『血氣形志篇』에 나타난 肝, 脾의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유지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太素』本에 근거할 때 『血氣形志篇』의 저자는 본래 인체 내에서 肝이 우측에, 脾가 좌

측에 있다고 인식(해부학적 관점)하였지만 王冰이 五行理論을 따르기 위해 左角을 肝俞로 바꾸면서 右角까지 脾俞로 바꾸었을 것이며, 그의 견해는 후세 醫家들에게 肝, 脾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臟腑의 위치에 대해 五行理論이 투영되어 인식한 경우도 있지만, 해부학적 지식이 함께 반영된 경우도 있는데, 『醫學入門』과 그것을 인용한 『東醫寶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李梴은 『醫學入門』(1575)의 臟腑圖에서 우측면의 臟腑總圖를 수록⁷²⁾하고 있지만 「臟腑條分肝」에서 “(肝은) 둘로 나뉘어 7개의 잎으로 되어 있고, 색은 봄에 나무가 번영함을 상징한다.”⁷³⁾라고 하고 또 “肝系는 횡격막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갈비뼈로 붙어 있고 …”⁷⁴⁾라고 하여, 肝은 五行理論에 따라 木(좌측)에 해당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臟腑條分脾」에서 “脾는 中脘 一寸二分에 있는데 …”⁷⁵⁾라고 하고 또 “脾에 大絡이 있는데, 그脾系는 횡격막 아래 정중앙으로부터 약간 왼쪽 옆구리에 치우쳐 胃의 위에 붙어 있고 胃의 包絡과 서로 붙어 있다.”⁷⁶⁾라고 하여, 비록 脾가 중앙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脾系가 왼쪽에 치우쳐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로써 李梴은 脾가 五行理論에 따라 중앙에 있지만 脾系는 해부학적으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許浚은 『東醫寶鑑·內景篇』(1610)에서 『素問·刺禁論』의 “肝은 왼쪽에서 생긴다.”⁷⁷⁾라는 내용

70)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312-315. “在藏爲肝. 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坼之象也. … 在藏爲心. 心形如未敷蓮花, 中有九空, 以導引天真之氣, 神之宇也. … 在藏爲脾. 形象馬蹄, 內包胃脘, 象土形也. … 在藏爲肺. 肺之形似人肩, 二布葉, 數小葉, 中有二十四空行列, 以分布諸藏清濁之氣, 主藏魄也. … 在藏爲腎. 腎藏有二, 形如豇豆相並, 而曲附於膂筋, 外有脂裹, 裏白表黑, 主藏精也.”

7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47.

7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27.
7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333. “兩分七葉, 色象春木繁榮.”
7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p.333-334. “肝之系者, 自膈下著右脇肋 上貫膈, 入肺中, 與膈膜相連也.”
75)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339. “脾居中脘一寸二分, 上去心三寸六分, 下去腎三寸六分. 中間一寸二分, 名曰黃庭.”
76)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340. “脾之有大絡, 其系自膈下正中, 微著左脇於胃之上, 與胃胞絡相附.”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0. “藏有要害, 不可不察. 肝生於左, 肺藏於右,

과 『醫學入門·臟腑條分肝』을 함께 인용하면서 “肝系는 횡격막 아래에서부터 왼쪽 갈비뼈로 붙어 있고…”⁷⁸⁾라고 하여 『醫學入門』의 ‘右’를 ‘左’로 고쳤다. 이로써 許浚은 肝의 위치를 기술할 때 『素問刺禁論』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적으로 五行理論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醫學入門』에 나타난 해부학적 지식을 오류로 간주하여 수정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덧붙여 설명하면, 실제 해부를 통해 그려진 存眞圖 계통의 正面圖, 背面圖가 비록 『圖注難經』, 『鍼方六集』 등을 통해 후대에 전해졌지만,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해 해부학적 관점이 五行理論보다 우위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明代 『鍼灸聚英』의 五臟六腑圖(側面臟腑圖)가 등장⁷⁹⁾한 뒤, 『古今醫統』, 『醫學綱目』, 『醫學入門』, 『萬病回春』, 『類經圖翼』, 『醫部全錄』 등 수많은 明代, 清代 醫書에서 앞 다퉈서 인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肝과 脾의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후대 醫家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후대에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해 五行理論(肝은 인체의 좌측에, 脾는 중앙에 있다는 관점)과 해부학적 인식(肝은 인체의 우측에, 脾는 좌측에 있다는 관점)의 차이를 구별한 이(李梴 등)도 있지만, 오로지 五行理論을 따른 이(許浚 등)도 있게 되었다.

III. 결 론

이상으로 『素問血氣形志篇』에 나타난 背俞穴과 肝, 脾의 해부학적 위치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心部於表, 腎治於裏, 脾爲之使, 胃爲之市. 鬲育之上, 中有父母, 七節之傍, 中有小心, 從之有福, 逆之有咎.”

78)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新增補對譯)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394. “『華陀內照圖』, 『醫學入門』과 달리 『東醫寶鑑』에서는 ‘右’로 된 것을 ‘左’로 바꾸었다.”

79)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靑島出版社. 2003. p.30. “현재 전해 오는 明堂圖 중에 최초는 元代의 正人, 伏人, 側人의 三人明堂圖이다. 그 臟腑圖는 臟腑明堂圖라고 명명하고 側人臟腑總圖에 속하는데, 北宋 楊介의 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를 하나의 臟腑總圖로 합성한 것이다. 醫家들이 五臟六腑를 나누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明代 중엽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다.”

俞穴의 위치에 대해 『內經』 注釋家, 『靈樞背腧』 및 여타 鍼灸書籍과 비교하고,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해 北宋 이전의 臟腑圖 및 『內經』의 다른 篇과 비교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肝과 脾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반영된 대표적 서적(『醫學入門』과 『東醫寶鑑』)의 相異한 관점을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素問血氣形志篇』에 나타난 背俞穴 중 肝俞와 脾俞는 『太素』에 따르면 각각 우측, 좌측에 있어서 王冰 本 『素問』과 반대로 되어 있다. 背俞穴의 높이가 『素問血氣形志篇』, 『靈樞背腧』, 여러 鍼灸書籍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五臟의 해부학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隋代 『太素』의 등장이 唐代 王冰 本 『素問』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素問血氣形志篇』의 저자는 肝은 인체의 우측에, 脾는 좌측에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太素』에 근거하면 『素問血氣形志篇』의 저자는 王冰보다 더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太素』가 南宋 이후로 중국과 한국에서 사라져서 肝과 脾의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內經』을 통해 후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唐代 王冰의 해부학적 인식, 즉 肝은 인체의 좌측에, 脾는 우측에 있다는 관점은 일찍이 『煙蘿子內境圖』(10세기, 五代)와 일치하는데, 해부학적 실제보다 五行의 관점에 더 가깝다. 그 후 區希範五臟圖(北宋代)에는 肝은 인체의 우측에, 脾는 좌측에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 해부학적 실제에 부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存眞圖(北宋代)에 이르러서 일부 서적에서는 좌측에 있던 肝의 형상과 우측에 있던 脾의 형상을 서로 바뀌되 肝과 脾의 표기는 『煙蘿子內境圖』를 답습하고, 또 다른 서적에서는 肝과 脾의 형상과 표기가 모두 수정되었다. 그러나 모두 『太素』 本 「血氣形志篇」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內經』의 다른 篇에서 이미 肝과 脾가 대체로 五行理論에 따라 각각 좌측과 중앙에 있다는 설명과 王冰이 『素問』을 注釋하는 과정에서 『素問血氣形志篇』의 肝俞, 脾俞의 좌우를 바꾸어 校正한 것은 韓醫學에서 肝은 인체의 좌측에, 脾는 중앙에 위치한

다는 五行理論의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결국 인체 내 臟腑 위치에 대한 인식은 해부학적 실제에 근거하기보다 五行理論을 더 따름으로써 실제와 이론이 상충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뒤로 예를 들어 明代 『醫學入門』(1575)에서는 肝은 인체의 우측에, 脾는 중앙에 있다는 五行理論의 관점과 肝은 인체의 좌측에, 脾는 우측에 있다는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관점을 모순 없이 받아들였지만, 『東醫寶鑑』(1610)에서는 오로지 五行理論의 관점으로 귀결하였다.

References

1. Heo J original work. DongUiMunHeonYeonGuSil trans.. (Chinese-Korean new added translation) Donguibogam. Seoul. BeobInMunHwaSa. 2012.
許浚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新增補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12.
2. Hong WS. Chinese Medical History. Seoul. DongYangUiHagYeonGuWon. 198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3.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eong Somun. Seoul. DongYangUiHagYeonGuWon.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 Hong WS. JeongGyo HwangJeNaeGyeong Yeongchu. Seoul. DongYangUiHagYeonGuWon.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5. Hua T. HuaTuoXuanMenNeiZhaoTu. Taipei. Ziyou Publishing Co... 1976.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台北. 自由出版社. 1976.
6. Huang LX original work. Park HG, Yun JH, Kim KW trans.. JungGukChimGuHakSulSaDaeGang. Seoul. Publisher BeobInMunHwaSa. 2005.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7. Huang LX. ZhongGuoZhenJiuShiTuJian(Vol. 1). Beijing. Jingdao Publishing Co.. 2003.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8. Huang PM. HuangDiZhenJiuJiaYiJing.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1990.
皇甫謐. 黃帝針灸甲乙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0.
9. Kajiwaraz SZ. ToniShou. Tokyo. Publisher Science Council. 2003.
梶原性全. 頓醫鈔. 東京. 科學書院. 2003.
10. Li J. HuangDiBaShiYiNanJing(Dao Cang Vol.21). Shanghai. Publisher WenWu, Publisher ShanghaiShuDian, Publisher Tianjin GuJi. 1988.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道藏 Vol.21). 上海.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
11. Li C. YiXueRuMen(Vol. 1). Seoul. Publisher NamSanDang. 1991.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12. Ma S. HuangDiNeJingLingShuZhuZhengFaWei. Taipei. Tailianguo Feng Publishing Co.. 1981.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馬元臺張隱庵合註 中).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13. Qin YR original work. Wang JS annot.. NanjingJiZhu. Taipei. Taiwan ZhongHuaShuJu. 1985.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14. Shi T. XiuZhenShiShuZaZhuJieJing(Dao Cang Vol.4). Shanghai. Publisher WenWu, Publisher ShanghaiShuDian,

- Publisher Tianjin GuJi. 1988.
石泰. 修真十書雜著捷徑(道藏 Vol.4). 上海.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1988.
15. SoMunYeonGuJipSeong Publication Committee. SoMunYeonGuJipSeong(Vol. 2). Daegu. GeumSeong printing house. 2001.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Vol. 2). 대구. 금성인쇄사. 2001.
16. Tanba KL. Ishinpo(Acupuncture and Moxibustion Books Large Scale. Vol. 23). Tokyo, Department of Public Science and Engineering Science Research Center 1979.
丹波康賴. 醫心方(鍼灸醫學典籍大系 Vol. 23). 東京. 出版科學總合科學研究所. 1979.
17. Wang B. ZhongGuangBuZhu HunagDiNeiJing SuWen(in Wang Bing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8.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Manila. World Health Orgaz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2008.
19. Wu K. SuWenWuZhu(in Wu Kun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1999.
吳昆. 素問吳注(吳昆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0. Yang SS. HuangDiNeiJingTaiSu. Seoul. Publisher DaeSeongMunHwaSa. 199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21. YeongChuYeonGuJipSeong Publication Committee. YeongChuYeonGuJipSeong(Vol. 2). Daegu. CheongUn printing house. 2006.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中卷). 대구. 청운인쇄. 2006.
22. Zhang JB. Zhi Yi Lu(in Zhang Jie Bin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1999.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3. Zhang ZC. HuangDiNeiJing SuWenJiZhu(in Zhang Zhi Cong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1999.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註(張志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4. Baik YS. A Study on the Movement Qi between kidneys(腎間動氣) in Huangdineijingtaisu(黃帝內經太素).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6. 29(3).
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25. Deng LZ, Zhang Nong, Sun Li. Characteristics Back Transport Point Selection Method of Two-inch Two-thirds Point in Ancient JiuJingTu. Western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1. 24(9).
鄧靈芝, 張儂, 孫力. 古『灸經圖』背俞穴二寸三分特色取穴方法. 西部中醫藥. 2011. 24(9).
26. Hong MY, Park WH. Consideration on the palpation of back pain. Dongguk J. Th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0. 8(2).

- 洪文燁, 朴元煥. 背俞穴 按診에 關한 考察. 東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0. 8(2).
27. Jin SY. Research on Atlas of Viscera. Chinese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4. 24(2).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28. Jo HJ. Comparison of Form Factors of Liver in ZangFu Diagrams(臟腑圖) before Northern Song Ages and Ones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明堂臟腑圖).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6. 29(2).
조학준. 北宋 이전 臟腑圖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圖에 나타난 肝臟의 형태요소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2).
29. Keum DH. A Study on comparing the distribution of Sympathetic Nerve System on the Back with Back-shu Point.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003. 9(2).
금동호. 교감신경계의 배부분포와 背俞穴의 비교연구. 大韓韓醫情報學會誌. 2003. 9(2).
30. Keum DH.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Parasympathetic Nerve System and Back-shu Points.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4. 15(2).
금동호. 부교감신경계의 분포와 背俞穴의 상관성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4. 15(2).
31. Kim KW, Park HG. A comparative study of Commentary of Yang Shang-shan and Wang Bing(1).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1. 14(1).
김기욱, 박현국. 楊上善과 王冰 注釋의 比較論의인 研究(1). 대한한의학회지. 2001. 14(1).
32. Lee BH, et al.. A statistic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Bokmohyul, Baesuhyul and anatomical rgans and conjecture of the organs of Simpo and Samcho.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s. 2009. 34(1).
이봉효 외 13人. 腹募穴·背俞穴과 解剖學的 臟腑의 相關性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心包와 三焦의 解剖學的 臟器 推定. 東西醫學. 2009. 34(1).
33. Lee SH, Kim JH. A Study 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Hwangjenaegyeongtaeso』 and Yang Sang-Seon's Medical Theor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2).
이상협, 김중환. 『黃帝內經太素』의 特徵 및 楊上善의 醫學理論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2).
34. Lee YB. (A) study of Yangshangsun(楊上善)'s theory of three-yum and three-yang(三陰三陽).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6. 10(1).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6. 10(1).
35. Lee YS. A Case Report of Three Yogaktong(腰脚痛) Patients Treated wit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by Analysing Su-point(背俞穴) compared with X-ray measuring.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6. 23(2).
이용섭, 홍승원. X-線像 배수혈 진단을 통한 요각통의 鍼灸 치험 3例.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2).
36. Li H, Wang X. Talk about Positioning method for Back acupoints in NeiJing.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01. 17(3).
李輝, 王旭. 談內經的 腧穴定位方法. 針灸臨床

- 雜誌. 2001. 17(3).
37. Li J, Zhao JP. Brief Analysis of Back acupoints. Clinical Journal of Traditional. 2005. 17(3). 李俊, 趙吉平. 背腧穴淺析. 中醫藥臨床雜誌. 2005. 17(3).
38. Li MS, Wang X, Yu TC. Brief Discussion on Theory of acupoints in NeiJing. Guid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 2015. 21(13). 李明爽, 王興, 于鐵成. 淺議『內經』中腧穴理論. 中醫藥導報. 2015. 21(13).
39. Park SH, Cho MR. Documentary comparative study on the chief virtues of the Back-Su(俞) points and the Front-Mo(募) points.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1. 18(1). 박사현, 조명래. 背俞穴와 腹募穴의 主治症에 관한 文獻의 比較 研究.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1. 18(1).
40. Qian CC. A new view on the specific time that 『Taisu』 was created.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2). 錢超塵. 『太素』가 지어진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새로운 견해.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2).
41. Ryu JA, Baik SY, Jeong CH. A Study on the acupuncture point Theory of 『Hwangjenaegyongtaeso』.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2. 25(1). 류정아, 백상룡, 정창현. 『黃帝內經太素』의 輸穴理論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1).
42. Seo MJ, et al.. Comparativ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Depressive Tendency and Tenderness of Alarm Points and Transport Points.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0. 27(4). 서민정 외 8인. 우울 경향과 腹募穴, 背俞穴 압통과의 관계 비교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10. 27(4).
43. Wang LJ. A little test on Back acupoints localization. Journal of Shaanx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22(6). 王立君. 背腧穴定位略考. 陝西中醫學院學報. 1999. 22(6).
44. Yuan JM, Zhong L. Overview on Back acupoints. Journal of Practic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2. 28(3). 苑家敏, 鍾蘭. 背俞穴概述. 實用中醫藥雜誌. 2012. 28(3).
45. Zhang YC, Zhang CX. Brief Analysis of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Back acupoints.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12. 28(10). 張永臣, 張春曉. 淺析『針灸甲乙經』對背俞穴的認識與應用. 針灸臨床雜誌. 2012. 28(10).